



# 美 'SID 2014' 삼성-LG 곡면 TV 전쟁

### 디스플레이 전문 전시회...최첨단 제품 출시 기술력 경쟁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가 3~5일(현지시각) 미국 샌디에이고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SID 2014'에 참가해 경쟁을 펼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커브드(곡면) LCD TV에 초점을 맞췄고, LG디스플레이는 곡면 LCD TV뿐만 아니라 곡면 OLED(유기 발광다이오드) TV를 함께 전면에 내세웠다.

SID(The Society for Information Display)는 1962년 미국에서 시작한 디스플레이 전문 전시·학회로, 올해에는 200여 개 기업이 참여해 실력을 뽐낸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번 전시회에서 곡면이 4200R(반지름이 4200mm인 원의 휘어진 정도) 105인치 UHD(5120×2160) 커브드 TV와 65인치 UHD(3840×2160) 커브드 TV 등 곡면 LCD 제품을 집중적으로 전시했다.

또 커브드 LCD를 TV뿐만 아니라 모니터로 만들어 커브드 패널을 다양하게 활용했다. 커브드 모니터는 정보 검색과 멀티태스킹, 게임 등 작업의 편의성을 높여준다는

게 삼성디스플레이의 설명이다. 또 업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해 웨어러블 기기와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1.84인치, 5.69인치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모바일용 OLED 패널, 저소비전력의 친환경 그린 LCD 등 다양한 제품을 함께 소개했다.

LG디스플레이는 고객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OLED와 LCD로 만든 곡면 TV 라인업을 구축했다. IPS 기술 기반의 65·105인치 울트라HD 곡면 LCD TV와 55·65·77인치 울트라HD 곡면 OLED TV가 부스를 채웠다. LG디스플레이의 울트라HD 곡면 TV는 FPR 3D기능이 기본 탑재되어 있어 곡면 디자인과 결합했을 때 몰입감을 극대화해준다는 점을 가장 큰 장점이라고 회사 관계자는 설명했다.

LG디스플레이는 일반HD(1280×720) 해상도의 4배인 쿼드HD의 5.5인치 모바일용 디스플레이, 98인치 울트라HD 전자철관, 투과율을 기존제품보다 17% 높인 투명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상업용 디스플레이를 함께 전시했다.



세계정보디스플레이학회(SID) 주최로 3일(현지시각) 미국 샌디에이고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SID 2014'에서 관객들이 LG전자의 UHD 곡면 OLED TV(위)와 삼성전자의 UHD 커브드 TV를 각각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 SKT, 아이리버 인수 추진

## 앱세서리 사업 강화...입찰 참가

SK텔레콤이 음향기기업체 아이리버 인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SK텔레콤측은 3일 스마트 앱세서리 사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기 위해 아이리버 입찰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앱세서리는 모바일 앱과 액세서리를 합친 말로, SK텔레콤은 스마트폰 확산과 함께 스마트폰 주변 기기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 것이라는 예상 하에 초소형 프로젝터 스마트빔과 교육용 스마트로봇 아피를 개발하는 등 스마트폰 앱세서리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아이리버는 과거 MP3플레이어와 전자사전 등으로 인기를 누리는 등 관련 분야에 기술력을 갖춰 인수 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SK텔레콤측은 보고 있다.

아이리버는 스마트폰 등장으로 어려움을 겪은 이후 현재는 초고음질 원음 음악 재생기 '아스텔렉' 등을 주로 생산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최근 아남전자와도 휴대용 고음질 와이파이 오디오 제조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인수의향서(LOI) 제출을 생각하고 곧바로 입찰에 참가하게 됐다"며 "추후 과정은 매각 주관사의 결정에 따라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최대환을 즐겨라! 삼성갤럭시 W 출시

삼성전자가 화면 커진 '갤럭시 W' 출시

삼성전자가 '갤럭시 W'를 SKT를 통해 출시했다. 신제품은 16 : 9 화면비의 7인치 HD TFT 화면을 장착한 것이 특징으로, 큰 화면을 이용해 두 앱을 한번에 띄울 수 있다. <삼성전자 제공>

### 금주 추천앱

## 어디든지 척척...내 손 안의 '길 안내'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스마트폰용 내비게이션 앱도 사용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위치 정보를 활용한 각종 지역정보제공, 증강현실 기능, hud기능 등 기존 내비게이션이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한 편의기능을 갖춘 매력적인 앱들이 등장하고 있다.

- ◆Tmap / 제작:SK planet / 사용기반:안드로이드, 아이폰  
국내서 가장 많은 휴대폰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SKT의 Tmap은 이동통신사 점유율처럼 높은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내비게이션에는 워젯, 블랙박스, 타임머신, 교통량에 따른 길안내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다.
  - ◆올레 내비 / 제작:KT / 사용기반:안드로이드, 아이폰  
Tmap과는 다르게 타사와 자사 구분 없이 무료로 이용가능하다. 초행길도 쉽게 찾아갈 수 있게 설계된 UI는 장점 중 하나다. 데이터나 배터리 사용량도 Tmap보다 비교적 적게 소모된다.
  - ◆U+Navi LTE / 제작:LG유플러스 / 사용기반:안드로이드, 아이폰  
국내 최초로 Full클라우드 내비를 지원하는 유플러스 내비는 3D 맵을 지원하여 입체감을 높였다. 자사고객만 이용가능하며 LTE 요금제를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무료로 이용가능하다.
- DESIGN ZOOOS 제공:디자인즈스 (대표 정우주 tiger@designzoos.com)

## 광주 대표 게임 개발회사 '인터세이브' 퍼즐게임 '파라파라 YO for Kakao' 서비스

'휴먼팩토리', '신들의 전쟁', '캐리비안베이' 등 다양한 장르의 소셜네트워크게임(SNG)을 선보인 인터세이브가 이번엔 퍼즐에 타이쿤의 재미를 더한 신작을 런칭한다.

광주의 대표적 스마트폰 게임 전문개발사 인터세이브(대표 이갑형)가 3일 상급한 과일 판매 스마트폰 퍼즐게임 '파라파라 YO for Kakao' 서비스를 시작했다.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우선 출시된 '파라파라 YO for Kakao'는 '드래그&터치' 기능을 이용해 같은 과일을 3개 이상으로 배열시키는 퍼즐게임이다. 퍼즐 요소와 함께 취향이 다른 손님들이 주문한 과일을 제때 포장, 판매에 성공했는지 여부가 제한 시간에 영향을 주는 등 판매와 관리라는 타이쿤적 장치로 재미를 더한 것이 특징이다.

주어진 미션을 클리어하는 스테이지 모드 외에도 제한시간 내 고득점을 얻는 썰링지모드가 있어 사용자들과 경쟁할 수도 있다.



인터세이브는 출시를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는 30일까지 '파라파라 YO for Kakao'를 다운받은 이용자 중 모두 400명을 추첨해 베스킨 라빈스 요거트 스무디 기프트폰을 지급한다. 또 같은 기간 동안 정해진 스테이지를 클리어 한 이용자들이 대상으로 문화상품권(1만 원권 200명, 2만 원권 20명, 5만 원권 5명)을 선물한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홈페이지([http : ppyu.webgm.co.kr](http://ppyu.webgm.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시내지국**

광천	366-8375
광남	222-9440
남부	652-0175
동광	264-2012
동명	222-9054
동부	225-6001
문흥	267-4748
백운	673-4698
봉선	675-5530
북광	525-3761
상무	372-2352
서광	369-0583
송하	676-6605
신안	512-1732
양산	571-7658
옹치	266-7601
우봉	522-7752
우산	512-8116
윤월	371-9818
중곡	961-2339
중앙	222-1896
중흥	224-6604
심월	673-1600
단신	973-2900
창장	224-8212
치평	376-6511
암남	682-8112
하남	959-1500
화정	375-9682

**지방지사**

광산	062)944-0444	순창군	063)653-0444
군산시	063)467-2500	고창군	070-8201-0370
정읍시	063)531-5544	서물보급소	02)313-5962
남원시	063)633-9911		

독자와 함께 걸은 길 62

# 광주일보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 대(代)를 이어 읽는 신문

광고문의\_062

**227-9600**

신문구독\_062

**220-0551**

예향구독\_062

**220-0550**